메르세데스 소사, 떠나간 인류의 목소리

우 석 균

카네이션 레드카펫 위에서

1982년 2월 18일 밤 부에노스아이레스 오페라극장에는 강렬한 전류가 흐르고 있었다. 공연이 어서 시작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그리움과 공연이 무사히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팽팽한 긴장감이 자아낸 자장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1978년 마지막 국내 공연 이후 3년 4개월, 망명 3년 만에 열리는 메르세데스 소사의 귀국공연이 열리기 직전이었다. 그녀 역시 설렘과 만일의 사태에 대한 걱정으로 공연 시작 전부터 이미 초긴장상태였다.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무대에 오르기 시작했다. 애써 청중을 외면하고 발치만 내려다보면서 근근이. 남들은 그녀를 타고난 카리스마의 소유자라고 하지만 감정이 북받쳐오를 때마다 별안간 목소리가 잠겨 이따금 곤욕을 치렀기에, 고대하고 고대하던 그 공연 순간 그런 상황이 재연될까 똑바로 청중을 바라볼 수 없었던 것이다. 메르세데스 소사의 모습이 보이자 청중은 5분 동안 우레 같은 박수갈채를 보내주었다. 문득 발밑에 거치적거리는 것이 있었다. 주변이 온통 선홍색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잠시 어안이 벙벙했고 잠시 눈을 의심했다. 꿈인지 현실인지 잠시 생각하기도 했다. 꽃이었다. 빨간 카네이션이었다. 꽃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아직도 서슬 퍼런 군부독재 치하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공연에 나선 메르세데스 소사에 대한 청중의 감사표시였다. 그녀의 노래와 함께

메르세데스 소사(1935년 7월 9일 ~ 2009년 10월 4일)

가슴에 깊이 묻어둔 분노를 폭발시키고, 하늘 끝까지 자유와 정의를 외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정성이었다. 카네이션 레드카펫을 사뿐히 즈려밟고 선 메르세데스 소사는 말했다. "저는 메르세데스 소사, 아르헨티나인입니다." 아르헨티나인인데 아르헨티나에서 공연할 수 없었던 그녀의 공연은 이렇게 막이 올랐다. 폐부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가 오페라극장을 휘어잡았다. 온몸으로 발산하는 열창이 거듭되었다. 청중은 혼연일체가 되어갔다. 갑자기 청중 속에서 커다란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끝이야. 군사독재는 끝날 거야." 다시 모두가 하나가 되어 그 말을 함께 외치기 시작했다. 모두 함께 열병에 걸린 사람들처럼, 모두 함께 최면에 걸린 사람들처럼, 모두 함께 신들린 사람들처럼. 1982년 메르세데스 소사의 귀국공연은 그렇게 아르헨티나의 심장에서 군부독재를 뒤흔들어

놓았다.

모두 함께 부르는 노래

공연은 메르세데스 소사와 청중이 하나가 되어 〈모두 함께 부르는 노래〉(Canción con todos)를 부르면서 막을 내렸다. 대단히 의미심장한 일이었다. 메르세데스 소사를 아르헨티나의 국민가수로, 라틴아메리카를 대표하는 노래꾼으로, 월드뮤직의 살아있는 신화로 첫 발을 내딛게 해준 노래였으며, 동시에 그녀를 죽음의 위협과 망명으로 몰아넣은 행보의 시작이나 마찬가지인 곡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메르세데스 소사의 시작은 아주 평범했다. 그녀는 1935년 7월 9일 투쿠만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투쿠만은 아르헨티나의 23개 중에서 두 번째로 작은 주이기는 하지만 전통음악의 보고였다. 안데스와 평야가 만나면서 다양한 지형, 다양한 기후가 연출되고,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의 정원'이라고 불릴 만큼 다채로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투쿠만이었다. 또한 식민시대부터 농업중심지였고, 원주민과 농민이 많아서 풍요로운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이 투쿠만이기도 했다. 〈투쿠만의 달〉(Luna tucumana)을 들어보면 그곳의 자연, 풍습, 음악, 민초들의 삶과 한 등을 단편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메르세데스 소사의 정신적 스승이라 할 수 있을 또 한 명의 국민가수 아타왈파 유팡키(Atahulpa Yupanqui)가 만들고, 투쿠만에서는 마치 우리의 아리랑처럼 널리 사랑받아서 메르세데스 소사 역시 자주 부른 노래이다.

내가 달에게 노래하는 것은
빛을 비추기 때문이 아니야.
내 기나긴 여정을 알기에
노래하는 거야.
내 기나긴 여정을 알기에
노래하는 거야.

아, 투쿠만의 달!
칼차키의 작은 북!
타피의 산길을 가는
가우초[3]들의 동반자,
타피의 산길을 가는
가우초들의 동반자.

첩첩산중을 헤매는 나,
그 누가 내 여정을 알까?
그러나 달이 떠오르면
나는 노래하리,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투쿠만에게
노래하고 노래하고 노래하리.

희망과 고통이 교차하던
아체랄 평원에서
사탕수수밭에 입을 맞추는
선량한 달을 보았네,

사탕수수밭에 입을 맞추는

3) 가우초. 팜파에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마치 미국 서부의 카우보이와도 같은 역할을 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

선량한 달을 보았네.

우리는 닮은 데가 있어,
고독의 달이여.
나는 걷고 노래하며
빛을 발한다네,
나는 걷고 노래하며
빛을 발한다네.

첩첩산중을 헤매는 나,
그 누가 내 여정을 알까?
그러나 달이 떠오르면
나는 노래하리,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투쿠만에게
노래하고 노래하고 노래하리.[4)]

4) 이 글의 모든 노랫말 번역은 우석균, 정승희의 단독 혹은 공동번역임을 밝혀둡니다. 원어 가사: http://letras.terra.com.br/mercedes-sosa/63313/

메르세데스 소사는 노래꾼의 길을 걸을 생각은 결코 하지 못했다. 1950년 친구들과 라디오 방송국에 구경을 갔고, 마침 일반인 노래경연대회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었고, 그녀의 노래 실력을 아는 친구들이 등을 떠다밀어 얼떨결에 노래를 불렀다가 상을 받고 출연계약까지 따내면서 노래 인생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1957년까지 메르세데스 소사는 그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이 해에 첫 남편이자 역시 음악인인 마투스를 만나면서 자신의 일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한다. 결혼과 함께 남편의 고향 멘도사에 정착해서 음악인, 예술인, 지식인들과 교류하게 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제 그녀는 노래를 예술로 생각하기 시작했고, 전통음악의 올바른 방향성에 대한 인식을 정립했다. 이를테면 소명의식이 생겨난 것이고, 그래서 행복할 수 있었다. 멘도사 그룹에서 메르세데스 소사는 전도양양한 노래꾼으로 부상했지만, 클래식음악이나 탱고 혹은 막 밀려들기 시작한 서양음악의 벽은 너무 높아서 전통음악가들이 설 자리는 대단히 좁았다. 결국 메르세데스 소사는 1958년 멘도사 생활을 접고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하지만 정작 그녀가 예술가로 인정받고 명성을 얻게 된 것은 1962년 몬테비데오로 건너가 카를로스 뉴녜스, 마리오 베네데티, 에두아르도 갈레아노 등 우루과이를 대표하는 지성들의 눈에 띠면서였다. 그래서 메르세데스 소사는 말한다. 투쿠만은 뿌리이고, 멘도사에서는 행복을 맛보았고, 자신을 인정해 준 몬테비데오에는 마음으로 감사한다고.

1963년 2월 메르세데스 소사는 멘도사로 잠시 돌아온다. 남편의 친구인 아르만도 테하다 고메스를 비롯한 멘도사 음악인들의 누에보 칸시오네로(Nuevo Cancionero) 선언에 동참하기 위해서였다. 새로운 노래를 천명한 노래운동인 누에보 칸시오네로 선언

은 아르헨티나 음악사의 한 획을 그은 사건이었다. 무엇보다도 이 선언은 전통음악이 자연과 풍습을 노래하는 장식용 음악이 아니라 인간을 그 중심에 두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전통음악이 골동품이 아니라 끊임없이 재창조되는 것임을 부각시켰다. '인간'을 중심에 두고 시대의 고민을 함께 하면서 현대성을 획득하고 음악의 깊이를 더할 수 있었고, '변화'를 지향함으로써 특정 장르에 갇히지 않고 음악의 폭을 넓혀가면서 전통/현대의 이분법적 잣대로 이들의 음악을 '낡은 것' 혹은 '시대의 변화에 뒤쳐진 것'으로 치부하던 이들의 편견을 깨뜨릴 수 있었다. 세사르 이세야 작곡, 아르만도 테하다 고메스 작사 〈모두 함께 부르는 노래〉는 누에보 칸시오네로의 상징과도 같은 노래였고, 이를 부른 메르세데스 소사는 단번에 이 노래운동의 중심에 설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1972년, 소위 고급예술의 성전으로 대중문화에 배타적이던 콜론극장이 그녀에게 무대를 내주었다. 그 무대에서 메르세데스 소사는 청중의 열광 속에서 〈모두 함께 부르는 노래〉를 부르며 사실상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노래꾼으로 공식인정 받았다.

남미의 대동맥을
일주하러 나서네.
바람 불고 햇빛 찬란한
초록이 우거진 지방을 밟으며.
걸음걸이마다
모든 아메리카의 살결을 내 살결에 느끼고,
내 목소리를 통해
격랑을 해방시키는
강물이 내 혈관을 흐르네.

알토 페루[5]의 태양,
볼리비아의 얼굴인 주석과 고독.
구리와 광물의 우리 칠레에
입 맞추는 초록의 브라질.
남쪽으로부터 오르네,
아메리카의 총체적인 정수를 향해.
점점 커져
폭발하고야 말 함성의
순수한 뿌리를 향해.

모든 사람의 목소리,
모든 사람의 손,
모든 피가
바람결에 노래가 될 수 있으리니.

나와 함께 노래하세
라틴아메리카 형제여,
그대의 희망을 목소리에
담아 함성으로 해방시켜라.[6]

하지만 좌우 갈등이 증폭되던 시점에 대중적 인기는 위험한 것이었다. 그녀 자신이 공산당에 가입한 전력이 있기도 하지만, '모두 함께'는 당시로서는 민중을 선동하는 지극히 불온한 표현이었다. 결국 1975년부터 우익 준군사조직 트리플A(Triple A)의 각종 위협과 공연 방해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듬해 군사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소위 '추악한 전쟁'(La guerra sucia), 즉 1976년에서 1983년까지 무려 3만 명 이상의

5) 알토 페루. 지금의 볼리비아에 거의 일치함.
6) 원어 가사와 동영상: http://letras.terra.com.br/mercedes-sosa/63291/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국가테러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애초에 메르세데스 소사는 끝까지 조국에 남아 자유와 정의의 노래를 계속 부르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1978년 10월 23일 라플라타 시 공연 도중 300여 명의 청중과 함께 연행되고, 이듬해 1월에는 예정된 공연이 1시간 전에 갑자기 봉쇄되는 일을 겪는다. 자신 때문에 청중이나 공연 관계자까지 위협받고, 아르헨티나에서는 더 이상 무대에 오를 수 없는 상황에서 메르세데스 소사는 결국 망명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스페인과 프랑스를 근거지로 활동하면서 그녀는 월드뮤직의 스타로 떠올라서 부와 명성을 손아귀에 넣었다. 바로 그래서 1982년 오페라극장 공연의 청중은 그토록 뜨겁게 메르세데스 소사를 환영한 것이다. 부와 명성을 다 뒤로 하고 목숨을 건 귀국공연을 감행했기 때문이다.

인류의 목소리, 아메리카의 어머니

그러나 메르세데스 소사가 월드뮤직의 신화가 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누에보 칸시오네로 운동도 아니고, 유럽에서의 성공도 아니고, 1982년 오페라극장 공연도 아니다. 또한 빼어난 가창력과 호소력 짙은 목소리 혹은 무대에서 내뿜는 강렬한 카리스마도 차라리 부차적 요소이다. 그녀가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것도 결코 자신의 명성에 취하는 법 없이 낮은 자리로부터 사랑을 주었다. 가장 인상 깊은 공연을 꼽아달라는 질문에 그녀는 대답한다. 1982년 오페라극장과 1999년 3월 3일 산타카탈리나 공연이라고. 산타카탈리나는 볼리비아와의 국경 근처에 있으며 해발 3,800미터에 위치한 마을이다. 메르세데스 소사의 공연이 아

마도 처음이자 마지막 공연이었을 정도로 하찮은 마을, 가는 길조차 변변히 없는 마을, 황량함과 빈곤 그 자체였던 마을, 지도에도 표시되어 있지 않았던 마을이었지만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모여 마을 1킬로미터 바깥까지 나와 환영의 춤과 노래를 선사했을 때 그녀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세계적 스타인 그녀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400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공연을 베풀어주었다. 그녀에게 '인류의 목소리'(La voz de la humanidad)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은 인간에 대한 그런 사랑 때문이었다.

소사는 '아메리카의 어머니'(La madre de América)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다. 이 역시 인간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 때문에 굳어진 푸근한 모성적 이미지 덕분이다. 후배 음악인들을 향한 아낌없는 사랑은 모성적 사랑의 한 단편이다. 메르세데스 소사에게는 음악적 자식이 세 사람이나 있었다. 레온 히에코(León Gieco)와 찰리 가르시아(Charly García)와 빅토르 에레디아(Víctor Heredia)였다. 뜻밖에도 모두 전통음악과는 거리가 먼 인물들이다. 특히 앞의 두 사람은 메르세데스 소사의 이력과는 전혀 무관한 록 나시오날(아르헨티나 록)의 기수들이었다. 이런 음악적 차이를 메르세데스 소사가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진정성과 예술적 완성도가 그녀의 첫째가는 음악적 기준이었기 때문이다. 가령, 메르세데스 소사는 히에코를 음반으로 먼저 접했다. 망명 시절인 1982년 초 프랑스에서였다고 한다. 그래서 오페라극장 공연 때 그에게 찬조출연을 요청했고, 갑자기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가 〈신에게 오직 바라네〉(Sólo le pido a Dios)를 비롯한 그의 노래에 대해 벅찬 음악적 감동을 토로했다. 이미 거장의 반열에 오른 메르세데스 소사의 이 진솔한 고백이 히에코로 하여금 그녀를 친어머니처럼 따르게 만들었다.

신에게 오직 바라네.
고통에 둔감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아무 이룬 것 없이 삭막한 죽음과
홀로 공허하게 마주치지 않기를.

신에게 오직 바라네.
불의에 둔감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이런 행운을 할퀴고 난 후
내 또 다른 뺨을 때리지 말아주기를.

신에게 오직 바라네.
전쟁에 둔감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전쟁이라는 커다란 괴물은
사람들의 가련한 순수함을 짓밟으니까.

신에게 오직 바라네.
속임수에 둔감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다른 이들보다 더한 속임수를 부리는 이가
쉬이 잊히지 않기를.

신에게 오직 바라네.
미래에 둔감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다른 문화를 열어갈 이가
상실감에 몸부림치고 있으니.[7]

메르세데스 소사는 또한 후배들의 노래를 자신의 공연에서 자

7) 원어 가사와 노래: http://letras.terra.com.br/mercedes-sosa/63324/

주 불러주었을 뿐만 아니라 출연할 기회도 많이 제공했다. 모든 비용을 대줄테니 어느 나라 어느 공연장으로 오라는 전화를 받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 더구나 공연이 끝나면 출연료까지 후하게 챙겨주곤 했다. 가령, 빅토르 에레디아는 냉큼 비행기 타고 카네기 홀로 오라는 전화를 받기까지 했다.

사람들은 세 명의 음악적 자식들 중에서 누구에게 더 마음이 가는지 메르세데스 소사에게 자주 물었다. 그녀의 대답은 찰리 가르시아였다. 그런데 그 이유가 또한 작은 감동이다. 가르시아가 셋 중에서 제일 조금 먹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말은 곧 셋 다 친자식으로 생각한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이다. 괴팍한 약물중독자로 여러 차례 사고를 친 가르시아의 행적을 감안하면 그녀의 사랑은 정말 친어머니 이상이다. 심지어 호텔 9층에서 수영장으로 뛰어내린 적도 있는 가르시아였다. 그것도 자신을 체포하러 온 사람이 찰리 가르시아건 누구건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하는데 발끈하여, 자신은 다른 사람과 달리 용감한 인물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이쯤 되면 로커 특유의 저항정신을 운운할 단계가 아니라 거의 정신병자 수준이다. 하지만 찰리 가르시아가 툭하면 사고를 쳐서 언론에 대서특필되어도 메르세데스 소사는 늘 그를 감싸고 위로하고 재기를 도왔다. 심지어 1998년에는 찰리 가르시아의 곡으로만 구성된 《드높은 의리》(Alta fidelidad)라는 헌정음반까지 냈다. 직전 해에 병으로 죽음 직전까지 이르러 쇠약할 대로 쇠약해진 메르세데스 소사가 또 한 번 '안쓰러운 아들'을 위해 크나큰 사랑을 베푼 것이다. 찰리 가르시아는 말한다. 메르세데스 소사는 장군님이고, 자신은 일개 병졸일 뿐이라고. 사고뭉치인 자신을 세상의 차가운 시선으로부터 늘 감싸안은 그녀의 사랑은 20층에서 밑으로 뛰어내릴 만한 용기, 즉 겨우 9층에서 뛰어내린 자신보다 훨씬 큰 용기가 없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이 가르시아의 변이었다. '아메리카의 어머니'라는 메르세데스 소사의 또 다른 별칭에 대해서 찰리 가르시아만큼 깊이 느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하나뿐인 내 가슴에 어쩌면 이렇게 큰 사랑을?

메르세데스 소사는 자신의 삶이 불행했다고 느꼈다. 그녀는 화려한 공연이 끝나고 난 뒤 혼자가 될 때 느끼는 고독을 몹시 싫어했다. 무대에 오르면 청중을 지배하는 그녀였지만 사실은 가까운 사람이 죽을 때마다 마음의 상처를 받는 여린 성격의 소유자였다. 특히 두 번의 결혼생활이 다 불우했다. 첫 남편은 새로운 음악세계를 열어주기는 했지만 남편으로서, 또 가장으로서는 무책임했다. 두 번째 남편 마시텔리는 그녀에게 커다란 버팀목이 되어주었지만 망명 직전인 1978년 사별했다. 그래서 메르세데스 소사는 자신의 삶이 고독했노라고 되뇌곤 했다. 하지만 세상이 다 행복한데 자신만 불행하다는 푸념과는 거리가 멀었다. 반대로 그렇게 고독한 자신에게 사랑을 보내주는 세상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다. 말년에는 더 성숙한 경지에 이르렀다. 특히 1997년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면서 삶이라는 것 자체에 더욱 더 소중함을 느끼면서부터였다. 메르세데스 소사가 부른 수많은 노래 중에서 아마도 칠레의 노래꾼 비올레타 파라의 〈생에 감사해〉(Gracias a la vida)가 가장 큰 사랑을 받았을 것이다. 메르세데스 소사 외에도 존 바에즈 등이 즐겨 불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곡이다.[8] 이 곡을 자살 직전

8) 비올레타 파라와 〈생에 감사해〉에 대해서는 《트랜스라틴》 2호(2008년 5월호) 「비올레타의 마지막 노래 〈생에 감사해〉」
참조. http://translatin.snu.ac.kr/translatin/0805/6-3culture.php

에 만든 비올레타 파라가 과연 이 노래를 통해 어떻게든 삶을 부여잡으려고 노력했는지, 아니면 자신의 삶에서 상실한 것을 역설적으로 예찬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병중의 메르세데스 소사는 자신이 숱하게 불러 명곡의 반열에 오르는 데 일조한 이 노래의 아름다움, 이 노래가 예찬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새삼 절실히 느꼈다고 한다.

생에 감사해, 내게 너무 많은 걸 주었어.

샛별 같은 눈동자를 주어
흑백을 온전히 구분하고,
창공을 수놓은 별을 보고,
무수한 사람들 틈에서 내 님을 찾을 수 있네.

생에 감사해, 내게 너무 많은 걸 주었어.
청각을 주어 밤낮으로 귀 기울여
귀뚜라미, 카나리아, 망치 소리, 물레방아, 소나기,

개 짖는 소리, 그리고 사무치게 사랑하는 임의
한없이 부드러운 목소리를 새기네.

생에 감사해, 내게 너무 많은 걸 주었어.
소리와 문자를 주어
'어머니, 친구, 형제자매,
애모하는 영혼의 편력 길을 비추는 빛' 같은
말들을 떠올리고 표현할 수 있네.

생에 감사해, 내게 너무 많은 것을 주었어.
내 지친 발을 이끌어주어
도시와 시골길,
해변과 사막, 산맥과 평원,
그대 집과 거리와 정원을 순례하였네.

생에 감사해, 내게 너무 많은 것을 주었어.
인류의 지성이 낳은 창조물을 볼 때,
악이라고는 모를 것 같은 선인을 볼 때,
그대 맑은 눈을 깊숙이 들여다 볼 때마다
요동치는 심장을 주었네.

생에 감사해, 내게 너무 많은 것을 주었어.
웃음을 주고 울음도 주니
내 노래와 당신들의 노래 재료인
즐거움과 고통을 구분할 수 있네.
당신들의 노래는 바로 하나의 노래이고
모든 이의 노래가 바로 나의 노래라네.

생에 감사해, 내게 너무 많은 걸 주었어.[9)]

삶의 소중함을 새삼 느껴봐서일까? 말년에 그녀는 세상 사람들이 보내주는 사랑에 대해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뿐인 내 가슴에 어쩌면 이렇게 큰 사랑을?" 하는 질문을 던지며 감격하곤 했다고 한다.

새로운 노래를 찾으러 갔나요?

지난 10월 4일 메르세데스 소사가 74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그 뉴스를 접한 순간, 서가 한쪽에 있는 《메르세데스 소사, 아르헨티나에서》를 떠올렸다. 개인적으로도 기억에 많이 남는 음반이었기 때문이다.

16년 전 칠레에 있을 때였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당시 어느 날 필자는 문득 평소 해보지 않은 짓이나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가 유학생활 4,5년이 지났는데 라틴아메리카 노래 한 곡 변변히 아는 것이 없다는 자괴감이 들었다. 그래서 카세트테이프 몇 개를 구입하게 되었다. 누구의 추천이나 받고 산 것인지, 무엇을 몇 개나 왜 샀는지는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초기에 산 카세트테이프 중 《메르세데스 소사, 아르헨티나에서》가 있었고, 유난히 마음에 와 닿았고, 이 음반 덕분에 라틴아메리카 음악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네 곡에 애착이 갔는데, 굳이 선호도 순으로 적어보자면 〈생에 감사해〉, 〈취중의 연인〉(Los mareados), 〈알폰시나와 바다〉(Alfonsina y el mar), 〈열일곱 살로 돌아간다는 것은〉(Volver a los 17)이다. 두 곡은 A면 중간쯤에, 또 다른 두 곡은 B면 중간쯤에 있어서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숱하게 뒤집어 들었던 기억도 생생하다.

9) 원어 가사와 동영상: http://letras.terra.com.br/mercedes-sosa/37544/

그 노래들 덕분에 라틴아메리카 음악도 들을 만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메르세데스 소사, 아르헨티나에서》가 라틴아메리카 음악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실황공연 음반인지라 찬조 출연자들을 소개하는 메르세데스 소사의 육성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따라서 그들에 대한 호기심에 그들의 음반도 구입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카세트테이프 음질이야 빤한 것이고 변변한 오디오가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정말 대단한 공연으로 느껴졌다. 꼭 한 번 공연을 봐야겠다 싶었고 이듬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기회를 잡았다. 그리고 그 후 15년, 막연히 또다시 공연을 볼 기회는 없는 걸까 하는 생각을 가끔 했다. 그런데 타계 소식이 들리니 허탈하도록 섭섭할 뿐이다. 새삼 〈알폰시나와 바다〉가 떠오른다. 굴곡진 삶을 살다가 자살로 인생을 마친 아르헨티나의 여성 시인 알폰시나 스트로니(Alfonsina Stroni)에게 바쳐진 곡이다. 그 유명한 아리엘 라미레스(Ariel Ramírez)가 만든 곡이다. 역시 얼마 전에 사망한 펠릭스 루나(Félix Luna)의 노랫말 중에 "알폰시나여, 고독을 안고 가는구려./어떤 새로운 시를 찾으러 갔나요?"라고 묻는 대목이 나온다. 바다에서 자살한 알폰시나의 죽음이 시를 찾으러 간 것이었으면 좋겠다는 진한 아쉬움이 배어 있는 대목이다.

그대의 가녀린 자취는 파도가 어루만지는
고운 백사장으로 결코 돌아오지 않으리.
한과 침묵이 감도는 호젓한 길이
바다 속 깊이 다다랐네.
순결한 고통의 호젓한 길이
물거품 속으로 사라졌네.

신은 아시지,

얼마나 큰 고뇌가 그대를 따르고,
어두운 바다 밑바닥에서
고동들이 부르는 자장가에
포근하게 파묻히려고
얼마나 큰 오랜 고통을 삼키고 있는지.

알폰시나여, 고독을 안고 가는구려.
어떤 새로운 시를 찾으러 갔나요?
바닷바람의 해묵은 목소리가
그대 영혼을 어루만지며 데려가는구려.
그리고 그대는 꿈에 취한 듯
바다옷을 입고 그리로 가네.

다섯 인어가
해초와 산호초 길로 인도하리니.
푸르게 빛나는 해마들이
옆에서 원무를 그릴 지며
어느새 바다의 주민들이
옆에서 노니리니.

유모, 불을 조금 더 낮추고
편안히 잠들게 해주오.
그가 전화해도 없다고 해주오.
알폰시나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주오.
그가 전화해도 꼭 없다고 해주오.
내가 가버렸다고 해주오.

알폰시나여, 고독을 안고 가는구려.
어떤 새로운 시를 찾으러 갔나요?

소금기 어린 해묵은 해풍이
그대 영혼을 어루만지며 데려가는구려.
그리고 그대는 꿈에 취한 듯
바다의 옷을 입고 그리로 가네.[10)]

과연 메르세데스 소사는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가서 새로운 노래를 찾고 있을까? 필자 생각에는 모두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인간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일구고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노래하는 모든 이에게 기꺼이 자신의 목소리를 빌려줄 것 같다.□

우석균 –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교수

10) 원어 가사와 동영상: http://letras.terra.com.br/mercedes-sosa/37548/